

다산초당

/강진군청 홈페이지

조선후기 학자 정약용 강진 귀양 일화 담았다



사암 정약용 전기

후손 정해렴 실학사 대표 신간 청년기·장년기·노년기 분류 시문·서간문 인용 일화 서술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1762~1836)은 장년기 강진에서 18년 동안 긴 귀양살이를 하며 후학 양성과 함께 많은 작품을 남겼다. 다산 (茶山)이라는 호로 유명한 정약용은 다양한호를 썼는데 그중 '사암'은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쓴호로 알려져 있다. 이호는 후대에 성인이 나와 자신의 저서를 보더라도 그의 주장이 그르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지었다고 전해진다.

정약용의 후손이자 수십 년간 도서 편집 분 아에 종사해온 정해렴 전 창작과 비평사·현대 실학사 대표는 신간 '사암 정약용 전기'에서 600쪽이 넘는 분량으로 '정신적 스승'의 삶 을 꼼꼼히 기록했다.

책은 '시암' 정약용이 1822년 자신의 삶을 정리한 '자찬묘지명' 집중본과 '시암선생연 보'등을 중심으로 그의 일생을 풀어나간다.

저자는 특히 사암의 생을 시대별로 따라가

면서도 그가 남긴 여러 시문과 서간문을 인용해 사암의 목소리를 되살린다. 연도에 따라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다큐멘터리인 셈이다.

책에서는 사암의 생을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세 시기로 크게 분류한다. 청년기에는 빛나는 재능을 가지고 정조 임금으로부터 총애를 받으며 경기 암행어사, 곡산도호부사, 형조참의 등의 벼슬을 역임하고 수원 화성을 설계하는 등 업적을 쌓으면서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다.

이 책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시기는 강 진에서 귀양을 살았던 장년기다. 신유옥사로 낙마하고 강진에서 18년간 지낸 사암은 가는 곳마다 풍속과 정취, 사회제도의 모순을 시문 과 기록으로 남겨 오늘날 조선 후기를 이해하 는 중요한 자료들을 전했다.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 데도 힘써 다채로운 일화가 있다. 저자는 이 과정을 시간 의 흐름대로 서술하면서도 여러 시문과 서간 문을 인용하며 사암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재 해하다.

'인간 정약용'을 보여주는 다양한 편지와 글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사암이 14세 때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해금강의 모습을 읊은 오언시 '그리운 금 강산' 부터 결혼 60주년 기념일을 자축한 시까 지 다양한 작품을 우리말로 옮겨 소개했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 한 작품이나 시골 할아버지의 모습을 천연덕 스럽게 묘사한 연작시 등에서는 우리가 알던 '대학자'가 아닌 '인간' 정약용의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110여편에 이르는 다양한 저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사암의 삶과 문학을 유기 적으로 느껴볼 수 있다. /이나라 기자

지역 문인들 작품 책 한 권에

광주 문학 여름호 발간 신작 등 150여 점 수록

광주문인협회가 지역 문인들의 작품을 한 권에 담은 '광주 문학 103호 여름호'를 발간 했다.

이번 호에는 역동성 있는 신입회원의 신작과 광주 문학인들의 지역 사랑의 정서·창의성을 녹여낸 150여 작품을 담았다. 지난 호계간평과 전숙(시), 윤삼현(아동), 박영덕(수필), 최문경(소설) 작가의 문학이론, 작품해설 등도 실었다.



김정희 편집주간은 "매회 일정 분량의 작품을 게 재하는 '광주 문학'은 계 간 문예지로 문인협회 회 원을 위해 가장 넓은 발표 지면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여름 광주문학의 작

품을 읽고 꿈과 상상력 그리고 즐기는 행복까지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문인협회는 1987년 초창기부터 2021년까지 광주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근황과 대표작을 모은 '광주문학상 수상자 작품집'을 오는 10월 발간할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문학들, '올해의 작품상' 장진기 시인

'어린시절 별밤을~'

8일 신인상 등 시상식



종합문예지 계간 '문학들'이제1회 '문학들'을해의 작품상' 수상작으로장진기시인의 시 '어린시절별밤을 창틀에 걸어 놓는작업을하고 있어요'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8일 오후 광주 동구 모처의 식당에서 열린다.

'문학들 올해의 작품상'은 지역문학을 활성화하고 한국 문학의 미래를 견인하고자 직전 1년 동안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수상작 선정은 '문학들'편집위원이 장르별심사를 거쳐 추천하고 최종 합평을 통해 전원 합의 방식으로 결정하며 상금 200만 원과상패가 수여된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수상작에 대해 철저한 고 립과 고독이 주조한 저 깊은 내면에서 울려 나 오는 목소리가 마음을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장진기

장진기 시인은 "현 장상황을생생하게전 하는전쟁의 종군기자 와 같이 우리 삶의 생 생한이야기를담은문 학작품을 써내려가겠 다"고 수상소감을 밝 혔다.

장진기 시인은 영광 출생으로 고려대 국문

과를 졸업했다. '칠산문학'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해 시집 '사금파리 빛 눈 입 자', '슬픈 지구', '화인', '꽃무릇, 지는 꽃 도 피는 꽃처럼 사랑하는가'를 펴냈다.

발행인 송광룡 시인은 "문학상의 기준은 작품성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올곧게 원칙을 지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문학상이 되도록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수상작과 심사평, 수상소감 등은 계간 '문학들'여름호(통권 68호)에 발표됐다. 시 상식에서는 코로나 19로 진행하지 못한 '문학 들신인상 시상식'(소설 부문의 김지원, 시 부 문의 전경숙·송하얀)도 함께 치러진다.

/이나라 기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7월 추천 도서 선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7월의 사서 추천 도서 4권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책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다.

'마법의 빨간 공'은 하기 싫은 일이 생겼을 때 시간을 건너뛰게 해주는 '마법의 공'을 발 견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다.

색연필로 그린 듯한 부드러운 그림체가 돋 보인다.

코로나19로 새롭게 생기거나 바뀐 것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한 '어린이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안내서', 500년째 15살로살아가는 주인공 가족을 다룬 '오백 년째 열다섯'도 추천도서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세책 니왔어요

◇포르투갈은 블루다=일 간지 기자 출신 조용준 작가 의 포르투갈 아줄레주 이야 기. 책은 성당 순례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당과 성당 속에 숨은 아줄레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단순히 포



르투갈 도시를 돌아다니며 느끼는 말랑말랑한 여행기가 아니다. 포르투갈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역사서다. 도도 559쪽.

◇콜센터의말=제9회브런 치북 대상을 수상한 이예은 작가의 에세이. 지난 2015년 한국에서의 호텔 홍보 일을 그만두고일본에살기 시작한 저자는 2020년 1월, 일본 여 행사의 콜센터에 입사한다.



초보 상담원으로서 겪은 고객과의 에피소드와 콜 센터 바깥의 이야기를 담았다. 민음사. 200쪽.

◇아이돌이 된 국가=류하이룽 중국 런민대 언론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 미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학자 12명이 중국의 인터넷 문화와 팬덤 민주주의에관해 분석했다. 2016년 1월



발생한 '디바 출정' 사건을 토대로 나타나는 사이버 민족주의의 새로운 양상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한다. 도서출판 갈무리. 320쪽.

◇코로나와 잠수복=소설 '공중그네'로 유명한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집. 코로나19 에 감염된 걸 직감하고 방호 복 대신 잠수복을 입고 생활 하는 아빠, 부인의 외도로 상 처받고바닷가 고택에 머무는



소설가, 조기퇴직 권고를 거부해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우연히 접한 복싱으로 용기를 얻는 중년 가장의 현실을 경쾌하게 풀어낸다. 북로드. 304쪽.

◇세상을 바꾸는 10개의 딜=20여 년간 기업 CEO부 터정치가, 경제학자, 과학자 등 우리의 삶의 방식을 뒤바 꾼 숨은 인물들을 인터뷰해 온 자크 페레티가 경험을 바 탕으로 경제, 정치, 과학 등



분야를 불문하고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비즈니스 딜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분석한다. 문학동네. 392쪽.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시·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mark>매</mark>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